광주 초·중·고 학업중단 1000명 넘어…예방 상담사 부족

지난 2월 기준 1105명…작년 대비 218명 증가
학벌없는시민모임 "상담 기능 강화 필요하다"

광주지역 초·중·고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는 상담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교육통계서비스에 게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28일 기준 광주지역 초·중·고 학업 중단 학생은 남자 557명, 여자 548명 등 총 110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남자 452명, 여자 435명 총 887명 보다 218명 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자퇴생이 614명(55.6%)으로 학업중단 학생의 과반을 넘었으며 퇴학 21명, 제적 1명이다. 이 중 298명(36%)은 자퇴 사유를 알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업 중단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위탁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전문상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학업중단 숙려제' 위탁기관은 전체 15곳으로 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곳, 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곳, 거점별 청소년수련시설 4곳이다. 이 중 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업중단 징후 학생 173명이 숙려제도에 참석했으며 139명(80%)이 학교에 복귀했다. 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상담실적은 57명이며 이 중 35명이 학교로 돌아갔다.

학벌없는시민모임 관계자는 "학업 포기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담을 통해 복귀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상담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며 "시교육청은 다양한 유형의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선옥기자

책과 함께 즐기는 북 피크닉 2022학년도 2학기 북 피크닉 행사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전장연 지하철 시위' 출근길 2호선 50분 지연

2호선 시청역→당산역→9호선 국회의사당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19일 출근길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운행이 50분 지연됐다. 9호선은 지연 없이 운행됐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규탄,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 제37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벌였다.

전장연 관계자 80여명은 2호선 시청역에서 당산역으로 향한 뒤 환승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2호선 외선이 50분 지연됐다. 9호선은 지연되지 않았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해 삭감 및 동결하고 자연증가분 예산만 갖고 과대 포장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선동을 했기 때문에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선전전을 마치고 국회로 향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 등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개최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女 부목사 감금·스토킹한 60대 목사 항소심서 감형…왜?

징역 2년6개월→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여성 부목사를 폭행·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감금·협박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수중감금·폭행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교회 숙소에서 부목사 B씨가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자 B씨 신체 일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등 A씨를 도와 교회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던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씨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게 부근이나 B씨가 생활하는 교회 건물을 배회하며 편지와 현금 봉투를 두고 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1월 11일과 2월 23일 오후 B씨를 차량과 모텔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여수 표류 패들보드·암초 충돌 모터보트 구조

여수해양경찰서는 주말 레저활동에 나섰다가 돌풍에 표류한 패들보드와 수중 암초에 충돌해 침몰 직전의 모터보트를 구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여수 하화도 앞 해상에서 18일 오후 2시 14분께 패들보드 6대가 수상레저 활동 중 갑자기 부는 돌풍으로 속력이 나지 않고 힘이 빠져 표류하자 119를 경유해 구조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보내 표류 중인 패들보드 6대와 수상레저 활동자 A(53세)씨 등 7명을 구조해 인근 선착장에 내리도록 했다. 여수 하화도에서 백야도로 횡단 중 기상악화로 힘이 빠진 이들은 구조 당시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건강 상태 등은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40분께 여수시 돌산읍 송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모터보트 K호(2.64t)가 수중 암초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타고 있던 B(67)씨 등 60대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배는 선미 용골이 가로 1m, 세로 50㎝가량 찢어지고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선체 3분의 2가 침수됐으나, 해경과 인근 선박의 인양·구조로 신기항에 입항 조치됐다.

여수=김현근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